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이냐시오는 『자서전』에서 세상 창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신비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영신수련 제2주간의 도입부에서 이냐시오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는 성삼위를 관상하도록 초대한다.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1521년에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 카스티야 왕국의 군인으로서 그는 프랑스군의 공격에 맞서 팜플로나 시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전투 중에 포탄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고, 이냐시오는 중상을 입은 채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로올라 성(城)으로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수술을 두 번이나 견디어 내었고, 수개월 동안 회복기를 보냈다. 이 기간에 이냐시오는 그때까지 대담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무훈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냐시오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단순히 “알아차리는” 또는 “주목하는” 그의 재능은 그가 영성 생활로 나아가는 데에 초석이 되었다. 집에서 회복기를 보내던 중 지루하고 따분

함을 느끼던 1521년 어느 날 이냐시오는 자신의 영spirit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

그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책은 기사도 소설이었다. 사랑이나 모험과 같은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에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이냐시오도 그런 이야기들로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의 집에 있던 책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전이 전부였다. 이냐시오는 하는 수 없이 이 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마음을 휘젓는 느낌에 휩싸였다. 예수님과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고무하고 자극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전에 그가 좋아했던 낭만적 사랑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불안했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서서히 이냐시오의 마음에는 새로우면서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느님 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관념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더 이상 그저 성서적 진술이 아니었다. 이냐시오가 체험한 하느님은 매우 인격적이며 활동적이고 관대하신 하느님, 넘치는 사랑의 하느님이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퍼부어 주신다. 하느님은 활동하시며 그림으로써 당신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얻어

내거나 구매하거나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를 사랑하겠다.”라든지, “네가 루르드에 간다면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리가 불구가 되고 동요하는 마음에 휩싸여 고통 중에 병상에 누워 지내던 이냐시오는 적극적인 사랑이 하느님의 가장 탁월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냐시오가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느님 상이다. 이냐시오는 자신의 몸, 영혼, 정신 안에서,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알아차림”으로써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냐시오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상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어떻게 깊은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히 관대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응답을 드리고 싶어진다. 우리의 삶 안에서 내리는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 모든 선택은 결국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찾고 발견하는 것과 연결된다. 「원리와 기초」에서 이냐시오가 말했듯이, “이 세상 만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

하느님 상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험의 기간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넘치는 사랑 자체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는 길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를 시험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내어 줄 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조물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여 그 창조 목적을 이행해 주기를, 그리하여 정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하느님 나라를 성취하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고 오염시키며 비축해 놓고 파괴하면서 남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패배하실 것이라는 비판적인 생각은 결코 할 수 없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하느님께서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한계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에 맞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시작하신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성찰은 영신수련을 마무리하는 기

도인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의 첫 번째 요점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냐시오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컨대 우리의 생명, 가족, 친구, 배우자, 신앙 공동체, 우리가 받은 재능과 교육,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시대, 우리의 신앙과 교회, 죄의 용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다음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당신 자신마저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존하신다.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신다. 실제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손 안에 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목소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냐시오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느님은 멀찍이서 손짓 한 번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애써 일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태어나, 거리의 설교자로 살아가셨으며, 배반을 당하시고, 사형에 처해지셨으며,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당신이 구속하신 피조물을 완성에 이르게 하시려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냐시오에게 있어 하느님은 사랑을 위하여 여념 없이 일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냐시오는 하느님 사랑의 무한성을 강조하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을 마무리한다. 하느님은 모든 장벽, 심지어 죽음의 장벽마저 허무셨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선물을 태양으로부터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빛, 샘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사랑이신 하느님의 마음에서 뿜어져 흘러나오는 강력한 사랑의 줄기를 표현하기엔 빈약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분이 바로 이냐시오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관대하게 내어 드릴 수 있다.